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일 목요일 음 1월 12일 (4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구름 많음

제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풍이 불고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 낮 최고기온은 5~10℃로 전망된다. 산간도로를 중심으로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뜸 07:30 해짐 18:06		달뜸 14:47 달짐 05:06
물때	만조 09:49 21:04		간조 02:41 16:15

식중독지수 관심 | 감기가능지수 주의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2/10℃
모레	구름 많음	2/11℃

월드뉴스

파키스탄 선박 전복 "사망자 대부분 어린이"

구명조끼 없었고 정원도 초과

파키스탄 북서부 호수에서 지난달 말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의 사망자 수가 51명으로 크게 불어났다고 돈(DAWN) 등 현지 매체와 외신이 1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군 홍보기관인 ISPR는 전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색·구조 작업이 며칠째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호수에서 51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이는 5명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8~14세의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 탄다 호수에서는 소풍 나온 종교학교 학생과 교사 등을 태운 목조 선박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침몰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해당 선박에 약 25명이 타고 있었고 어린이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탑승자와 희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파키스탄 탄다 호수에서 진행 중인 수색 작업. 연합뉴스

조사 결과 사고 선박에는 정원을 훨씬 넘긴 57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55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교사와 선박 조종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바다직박구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았지만

김 완 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학박사

종달리 마을 안 정자에 세워져 있는 공덕비 위에서 바다직박구리 한 마리가 인사를 건넸다. 멋진 포즈를 취해 준 것도 고마운데, 연신 몸을 움직이며 더 가까이 오라 유혹한다. 덕분에 공덕비 내용을 살폈다. 마을 번영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주신 재일교포들의 업적이었다.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가족애와 애향심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나라 안에서는 중앙정부의 홀대와 육지 사람들의 냉대에 분노를 삼켜야 했고, 낯선 이국에서도 섬사람들의 디아스포라로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한 때 중앙정부는 제주 사람들에게 약 200년 동안 배를 타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출륙금지령(1629~1823)이 그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1555년에 발생한 을묘왜란을 대승으로 이끈 제주도민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굴한 정책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30년 만에 해상통로를 차단해 버린 것이다. 뱃길은 제주 목사의 부임을 비롯하여 제주마와 공납품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해상교통이었다.

그야말로 제주도는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금지령이 해제되고 갑오개혁을 계기로 섬 바깥세상은 근대화 물결로 경제적 성장을 꾀하고 있을 때, 제주 사회는 암흑이었다. 세계1차 대전 이후,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임금의 노동력이 급한 일본 기업의 구인 정책으로 조선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 중 제주인이 5만명이 넘었다. 이는 1930년대를 기준으로 제주도민 인구의 25% 정도인 셈이다. 제주항에서 목포 또는 부산을 거치던 항로 대신에, 제주-오사카 간에 정기 항로가 생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려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특히 해녀들의 출타가 급증하였다. 군수산업과 방직공장을 비롯하여 가죽, 철공, 유리, 막노동 등 현지인들이 꺼리는 위험한 분야에서 종사하다보니,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 당시 조직된 지역별 재일친목회는 타국에서의 울분을 달래고 단합된 마음을 다지기 위한 공동체였으며, 지금도 도내외의 향우회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해방 이후 마을 곳곳에 들어선 도로, 전기, 수도, 전화, 마을회관, 학교 그리고 감귤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근대화는 재일제주인 1세대와 재일교포들의 헌신적인 기부 활동에 의지하였으며, 향우회별 선의의 경쟁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올해는 출륙금지령 해제 200주년 그리고 제주-오사카 간 군대환(君代丸) 직항로 개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때마침 '제주 고향사랑기부제'가 닻을 올리고 항해하고 있다. 텃새인 바다직박구리는 바다를 건넌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고향의 보금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먼 바다에서 고향 번영에 기여하신 분들의 업적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바다직박구리처럼 제주의 자연 가치와 제주다움을 간직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운동으로 번져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열린마당

안전하고 행복한 이사를 위하여

박 창 형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신구간은 제주의 전통 풍습 중 하나로,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일주일 가량의 이사를 해도 좋다고 여겨지는 기간이다. 신구간이 누구에게는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에는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다. 이사시 가스시설 막음 조치 미이행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사철에 발생되는 가스사고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3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내달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스화재사고 대응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스시설 안전조치 요령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가스시설(가스렌즈) 철거에 따른 배관을 반드시 마감 처리하여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전기히터, 전기 매트 등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셋째,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전원을 끌어 쓰거나 여러가지 전기 기구를 사용하는 문어발식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모든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도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구간 뿐만 아니라 365일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신속 집행, 신3고시대 이겨낼 경제활력 방안

윤 예 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제적 혹한기, 일명 '신3고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로 주춤하게 된 지역경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위축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나 제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도 낮게 추정되고 있는 지금, 민생 소비의 위축과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경제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의 선제적인 지역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2%로 정해 총 4576억원의 지방재정을 신속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집행의 원활화를 위한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경제위기이지만 이렇듯 행정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기반으로 모두의 노력이 보태진다면 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신속 집행이 '신3고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서귀포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관리에 앞으로도 집중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분양
• 천 혜 향 2, 5년생
• 하례조생 4년생
• 레 드 향 2, 3년생
• 한 라 봉 2, 3년생
• 유라조생 2, 3년생
• 유라실생 4, 5년생
• 하 귤 4, 5년생
• 궁 천 3, 5년생
• 레 몬 4년생
• 황 금 향 2년생
• 그외 다수품종
제 일 종 묘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8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6호
연락처 010-2699-2355 010-3694-2290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귤(아마나스)1~2년생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유라실생 1~3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히노아까리 4년생 ● 오하라베니와세 1~2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귤, 천혜향, 오하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